

<2022년 8월 7일 주일말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대 성경]

누구든지 할 일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없나니 저마다 할 일을 행하여라.

자기가 할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느냐.

행할 때 문제가 해결되나니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으니라.

행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너와 같이 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12절]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 <주제 자막>과 <성구 자막>은 ‘설교자가 준비’

-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막>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입니다.

- <마태복음 7장 7절>의 구하라는 말씀은,
그동안 설교로 참 많이도 해 주었습니다.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 책임분담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인간 책임분담’입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분담’입니다.

-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구 자막1>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것도 많고, 찾아서 얻을 것도 많고,
닫힌 문을 열어서 얻을 것도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성구 자막2>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9-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구 자막3>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 사람도 대하는 대로 대해 주고,
하나님도 대하는 대로 대해 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 준다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 영상을 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영상1>

- 오늘 본문 말씀을 생명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시 할 때 위력이 생깁니다.

- 천주교와 개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여,
오늘날 3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생명들을 전도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약의 역사를 꽃피웠습니다.

구하니 하나님께 영육으로 받았고,
찾으니 찾게 되어 재물도 얻고, 새로운 땅도 얻었고,
기도함으로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닫힌 문들을 두드리서 열리게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심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역사를 펴게 되었습니다. <끝>

- 선생님도 이 말씀을 절대 믿고 생명이 하며 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몸 하나’ 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몸 가지고 섭리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마태복음 7장 7절>을 마음에 새기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영상2>

- 섭리역사를 시작했으나,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늘 함께하며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구할 때마다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어 거할 곳을 주셨고,
새 장소에서 시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 감당이 안 될 때마다 또 구했습니다.
더 큰 곳을 달라고, 밤을 새워 구했습니다. 줄 때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면 더 큰 곳을 찾게 해 주었고,
거기서 또 시대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 늘 생명을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혼자서 하지 않고, 먼저는 생명을 찾게 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만나면, 말씀을 전해 주면서 전도했습니다.

섭리역사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 섭리역사 초창기 때에도
서울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큰 땅을 구했습니다.

생명들을 담을 곳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하니, 하나님은 결국 ‘월명동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해서 얻고, 또 구해서 또 얻었습니다.

어느 때는 일주일, 어느 때는 40일씩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씩 받고 얻어 온 역사입니다. <끝>

- 지난주 주일말씀에

<알고, 진정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깊이 기도하니,
하나님은 지난날이 쪽 떠오르게 하시며

“구해라. 이것이 답이다.

또 구할 것을 구해라. 그러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섭리역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답을 깨닫고 찾았으며,
그로 인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면서 행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낙심하여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없고,

힘들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 오늘 본문 말씀을 잊지도, 잃지도 말고 행하기 바랍니다.

절대 구해라. 책임분담을 해라. 그러면 주신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합당하면 주신다.

없으면, 필요한 것을 찾아라.

존재물도 찾고, 필요한 사람도 찾아라. 찾으면 주신다.

필요한 자를 찾아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 섭리사의 모든 것들도 구해서 얻었고, 찾아서 찾았고, 막힐 때마다 두드려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도, 가정도, 섭리사적으로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행할 때입니다.

- 섭리사 각 교회들도 어떻게 찾고 얻었습니까?
우리만의 힘으로 찾고 얻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찾고 얻었습니다. 맞지요? 정말 맞지요?

전도할 때도 생명을 보내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찾고 얻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 지금은 섭리사 모두의 마음이 흠어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 큰 어른들이 말씀 외의 다른 말에 귀 기울일 때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뒷말을 하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 때가 아닙니다.

섭리사 어린 자들도 역사의 흐름을 따라

갈수록 성장하며 가는 이때에,

왜 신앙께나 했다고 하는 어른들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합니까?

그것도 지금은 2022년입니다. 역사가 어느 때입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정말 섭리역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깨닫고 하기 바랍니다.

충성자들은 자기 사명에 따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명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꼭 ‘간판’을 내세우며 일을 해야, 인정합니까?

<사명자>는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 흘리며, 혹은 깊이 통곡하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고심하고 또 고심하며

충성스럽게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입니다.

구하는 만큼 얻게 되고, 찾는 만큼 찾게 됩니다.

- 구할 때는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1000리를 가야 얻게 되는데, 100리만 가면 얻지 못합니다.

1000리를 가야 얻을 것은, 1000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 “구하면 주리라.” 하셨으니,

섭리사 모두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해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 하나님은 항상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마다 구할 것이 있고, 찾을 것이 있고, 두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한 대로 실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기회의 때’입니다.

-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누구든지 ‘책임을 해야’ 얻습니다.

- <성경 말씀>은 읽기만 하면,
그냥 하나의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 행할 때 위력이 오고,
 - 행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말씀 마무리>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찾아야 됩니다.
- <첫사랑, 첫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 섭리사의 충성자들을 의도적으로 한 명씩 건드리며,
혹은 지도자 전체를 건드리며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자기 잘못과 죄>를 찾아서 반드시 사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 화목을 깨트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말을 찾아서 퍼트리며
단상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힘든 자, 쓰러지는 자>를 찾아서 중심을 잡아 줘야 됩니다.
-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냥 말하며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에스더처럼 자신에게, 형제들에게, 모두에게
<억울한 일>은 없는지 찾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 말씀 속에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찾아서 자기 말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삶>을 찾아서 행해야 됩니다.
- <구할 것, 찾을 것, 두드릴 것>을 찾아서 기도해야 됩니다.